

KAO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2023 춘계학술대회

일시: 2023년 6월 11일(일) 10:00~17: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대강당

임플란트 수복 후 CARE



회 장
김선종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 나무들과 눈부시게 파란 잔디가 있는 초여름의 햇살을 마음껏 만끽하는 6월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수복 후 환자 care가 중요합니다.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임플란트 치료후 케어에 관련하여 7분의 학계를 대표하는 연자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학술프로그램과 전시회는 '임플란트 수복 후 CARE'를 주제로 보철전문의가 보는 임플란트주위염, 정기 치주, 임플란트 follow-up, 실패한 임플란트의 수술적 재치료, 기계적 합병증 처치 (보철적 재치료), 식편압입, Overload를 예방하는 임플란트 교합, 임플란트(주위염) 치료의 보험 청구 등 최신기법과 임플란트 관리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강의를 허락해주신 함병도 원장님, 홍순재 원장님, 박휘웅 원장님, 최성호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강의와 진료에 바쁘신 서울성모병원 치과보철과 이원섭 교수님, 전남치대 치과보철과 임현필 교수님, 연세치대 치과보철과 김재영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KAO) 춘계학술대회에서 임플란트 수복 후 care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며 임플란트 치의학의 기본부터 현재, 미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학회준비에 참여해주신 학회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김좌영 학술대회장과 김태형부회장님, 방은경 총무이사, 강경리 학술이사, 광고협찬을 해주신 업체관계자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회장 김 선 종



학술대회장
김좌영

프로그램

시간	연제	연자	좌장
10:00~10:30	등록 및 개회사		
10:30~11:10	보철적 관점에서 보는 peri-implantitis의 치료와 예방	박휘웅 (서울에이스치과의원)	이용찬 고문
11:10~11:50	Peri-implantitis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	함병도 (카이노스치과의원)	
11:50~12:30	실패한 임플란트 사이트에서 재식립하는 요령과 노하우	홍순재 (닥터홍치과의원)	
12:30~13:30	Lunch time		
13:30~14:10	한국형 IARPD 설계의 정석: 임플란트 합병증 고민 타파	임현필 (전남대학교 보철과)	이준석 명예회장
14:10~14:50	보철 장착 후 불편감: 식편압입 현상과 저작 곤란 호소에 관한 고찰	이원섭 (서울성모병원 보철과)	
14:50~15:10	Coffee break		
15:10~15:50	임상에서 실패 없는 교합이야기	김재영 (연세대학교 보철과)	이강운 부회장
15:50~16:30	쉽게 설명드리는 임플란트 보험청구의 모든 것	최성호 (연세남대문치과의원)	
16:30~	폐회		



박휘웅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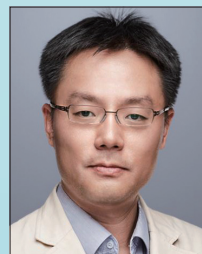
함병도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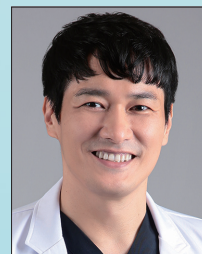
홍순재 원장



임현필 교수



이원섭 교수



김재영 교수



최성호 원장

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2점

● 등록비

	사전등록 (6월 2일 금요일까지)	현장등록
임플란트 마스터, 회원	3만원	4만원
비회원	4만원	5만원
전공의, 군의관, 스텝	2만원	3만원

● 등록방법 : 등록자명과 면허번호로 입금 후(예. 홍길동1234)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홈페이지(<http://kaoimplant.org>)의
2023 춘계학술대회 등록란에서 등록가능 합니다.

● 등록계좌 :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1005-203-357009 우리은행
등록자명과 면허번호로 입금(예. 홍길동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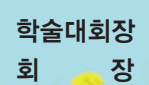
● 등록문의 : kaoimp@gmail.com 또는 010-9970-9210

● 대회장 안내 : 지하철 5호선 발산역 (8번출구 도보1분)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대강당

* 주차권 구입 가능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학술대회장 김 좌 영
회 장 김 선 종